

제 2 장

2009 마약류 범죄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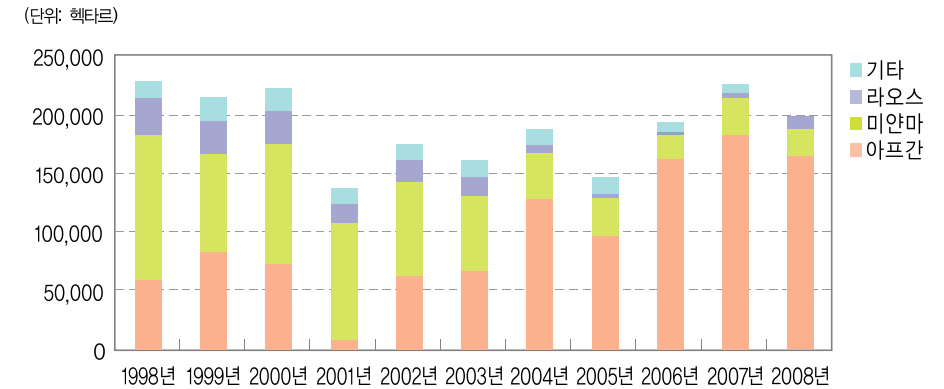
마약류별 일반현황

제1절 아편, 헤로인

1. 세계적 생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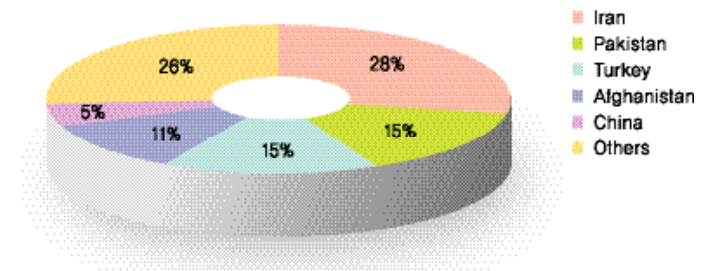
- 세계적으로 아편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지역은 황금의 초승달지대¹⁾와 황금의 삼각지대²⁾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으로 동 지역에서의 생산량은 200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전 세계 양귀비 경작지는 2008년 현재 200,000헥타르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이는 아프가니스탄 내의 경작지가 2007년 193,000헥타르에서 2008년 157,000헥타르로 전년대비 36,000헥타르 줄어든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황금의 초승달지대에서도 가장 많은 아편을 생산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재배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한해 생산량이 8,200톤에 이르렀으나 2008년 7,700톤으로 감소세를 나타내었음
- 황금의 삼각지대의 양귀비 재배는 국제기구의 마약퇴치 지원과 해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 힘입어 1990년대 초반 2,000톤에 육박하던 것이 2004년 이후 500톤 이하로 감소하였음
- 아편의 압수량은 2007년 508톤으로, 2002년 96톤을 압수한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헤로인의 경우 2003년 이후 그 압수량이 50톤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음. 이는 생아편 또는 중간 단계의 정제된 아편류보다는 완제품 위주로 밀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함

1)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접경지역
2) 미얀마, 라오스, 태국 접경지역



[그림 2-1] 주요국 양귀비 경작면적

※ 출처: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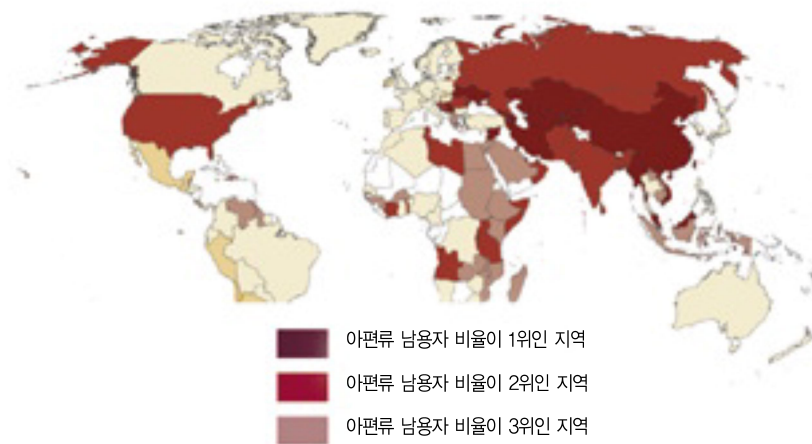
[그림 2-2] 지역별 헤로인 압수량 비율 추이

※ 출처: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9

-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이란,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미얀마 그리고 중국은 자국 내에서 아편의 남용률이 다른 마약류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임
- 헤로인 등 남용과정에서 주사기를 공동 사용함으로써 에이즈 감염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의 여성 에이즈 환자의 상당수가 마약류 투약 과정에서 감염되었다는 보고가 있음

- 에이즈 감염 공포로 인해 호주에서는 정맥으로 주사하는 분말 헤로인을 피하고 알갱이 형태의 헤로인을 흡연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고, 유럽 또한 주사하는 분말 헤로인 대신 코로 흡입하는 코카인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음

아편류 남용자 비율에 따른 분포도



[그림 2-3] 아편류 남용자 비율에 따른 분포도

※ 출처 : 미국법무부 발간 INCSR 2009

2. 유통경로

- 유엔 추산으로는 매년 3,500톤의 아편류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을 경유하여 터키 또는 서유럽으로,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으로, 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러시아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음
-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아편류는 대부분 이란을 경유하고 있으며 2008년 전 세계 아편 압수량의 84%인 427톤의 아편이 이란에서 압수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2005~2006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을 경유해 중국·인도로 밀반입되는 유통경로도 적발되었음
- 미얀마의 중국 인접 국경지역에서 생산된 헤로인은 운남성, 광서성에서 광둥성을 경유, 마카오 및 홍콩으로 반출되는데,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육로 화물 교역량이 폭증함에 따라 밀수품 검색 등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밀거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북미에서 남용되는 헤로인은 주로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 생산되어 서부 또는 동부방면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2-4] 아편류 유통경로

3. 지역별 현황

가. 황금의 초승달지대 (Golden Crescent)

- 2008년 현재 전 세계 아편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서남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의 접경지역을 일컫음
- 2008년 동 지역의 양귀비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5% 감소한 158,909헥타르로 동 지역 아편 잠재 생산량은 7,748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아프가니스탄

- 유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 아편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내 마약 밀매조직은 동 지역에서 생산된 아편을 생아편, 모르핀, 헤로인 등의 다양한 형태로 유통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경작지는 120,000헥타르로 집계되어 2008년 157,000헥타르에서 24%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생산량은 7,700톤으로 전년대비 10% 감소하였고 이는 경작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편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기후 조건 등이 양귀비 재배에 적합하였기 때문임
-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남서부의 6개 주에서 국내 아편 생산량의 97%가 생산되고 있는 반면, 북부·중앙·동부지역은 그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정부 당국의 마약퇴치 노력으로 헬만드 주에서는 양귀비 경작지 34,000헥타르가 감소하였음
- 아프가니스탄 내 아편 생산지역의 이동변화는 주변국으로 파급효과를 나타내어 북동지역과 동부지역에서의 아편생산 감소는 중앙아시아지역 및 파키스탄에 대한 아편류 밀거래를 감소시킨 반면, 남부지역의 아편생산 증가는 이란에서의 아편류 밀거래를 증가시켰음
-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2005년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통계 조사를 시행하여 자국내에서 150,000명의 아편 남용자, 50,000명의 헤로인 남용자를 포함하여 총 92만 명이 마약을 남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 수치는 아프가니스탄 전 인구의 약 4% 수준이었음. 2010년 통계 조사에서는 이러한 수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당국은 2006년 국가적 마약통제전략을 수립하여 법집행, 지역공조, 수요 감소, 공공 교육 등의 시책을 통하여 마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파키스탄

-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의 접경지역이 1,500마일에 이르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아편류와 해쉬쉬가 세계 시장으로 반출되는 주요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마약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물질이 아프가니스탄 내로 유입되는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150톤에 이르는 헤로인과 80톤에 이르는 아편이 매년 아프가니스탄의 접경지역을 통해 밀매되어 이란, 중국, 걸프만지역, 유럽, 미국 등지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힘
- 2009년 파키스탄 내의 양귀비 경작지는 1,558헥타르로 전년대비 10% 가량 감소하였으며 이 대부분은 칼라 다카 지방에 집중되어 있음
- 당국에서는 2009년 말 마약 통제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본 방안은 마약류 생산 근절, 마약 남용자 감소 방법, 국제공조 강화 등을 주요 방안으로 하고 있음

● 이란

- 이란은 1970년대 후반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이었으나, 지난 20여 년간 강력한 단속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아편생산이 거의 미미해지면서 아편 생산국이 아닌 경유국 및 소비국으로 재분류되었음
-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아편류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직접 또는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간접 유입되고 있고, 이렇게 유입된 아편류가 걸프지역 국가, 러시아, 유럽지역으로 다시 반출되는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음
- 1999년도 통계조사에 따르면 이란 성인인구의 1.5%에서 3.2%가 아편류 중독자로 분류되어 매우 높은 마약 남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 0.6%, 파키스탄 0.7%, 아프가니스탄 1.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임

나. 황금의 삼각지대 (Golden Triangle)

- 2008년 전 세계 아편 생산량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라오스, 태국 접경지역을 일컫음
- 1990년대 초반 동 지역은 황금의 초승달지역에 육박하는 아편을 생산하였으나, 정부 당국의 강력한 단속활동 및 대체작물 개발 등 양귀비 재배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그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음

● 미얀마

- 1948년 미얀마의 독립 이후 계속된 정부의 마약단속 작업은 1980년대까지 과거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있던 와족, 고강족 등 소수민족들이 무장군인들을 거느리고 밀림에서 조직적으로 대량의 마약을 생산함으로써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과 중반에 위 지역의 반군과 정부의 평화협정 체결 및 군사조직³⁾의 와해로 미얀마의 양귀비 재배 및 생산량은 현재까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미얀마는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아편을 생산하는 국가이지만 그 양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들어 2008년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5% 정도만을 생산하였음
- 정부 당국은 마약류 퇴치를 위해서 중국 및 태국과 인접한 국경지역 양귀비 재배 농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4년까지 계속되는 ‘양귀비 재배지 근절 1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미국과 태국 등 관련 국가와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라오스

- 라오스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해마다 100톤을 초과하는 아편이 생산되었으나,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라오스의 양귀비 재배면적은 급속히 줄어들어 2009년 약 11톤의 아편을 생산하였음
- 양귀비가 재배되는 지역은 주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의 접경지역으로 인접국가의 마약밀매상들과의 계약에 의한 밀경 또는 외국으로의 밀매를 위한 재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라오스의 아편 중독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현재 8,000여명의 재발 중독자를 포함하여 총 16,000여명의 아편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태국

- 태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치앙마이, 치앙라이 등 북부지역과 미얀마, 라오스

3) 산족을 이끌고 황금삼각지대에서 무장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조직으로 헤로인 거래에 깊숙이 관련했음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450톤의 아편을 생산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 정부의 대체 작물 프로그램 실시 및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2003년 이후 아편생산이 보고되지 않고 있음

-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서 생산된 아편 또는 헤로인이 태국으로 밀수되어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제 3국으로 반출되는 사례가 증가하였음
- 태국 아편 중독자들은 국내 헤로인 가격이 상승하자 비교적 값이 싼 수입 헤로인을 사용하거나 메스암페타민(일명 야바)을 대체 마약으로 남용하고 있음

다. 남아메리카 지역

-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주로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 아편이 생산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멕시코 149톤, 콜롬비아 14톤의 아편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됨
- 멕시코는 2000년 초반부터 그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콜롬비아에서는 1980년대 커피가격이 하락하면서 1990년대 초반 마약조직들에 의해 아편이 본격적으로 생산되었음
- 미국에서 압수된 헤로인의 60% 가량이 콜롬비아를 원산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콜롬비아와 미국간의 헤로인 밀매 단속이 절실함
- 멕시코, 페루 등 남미지역에서의 헤로인 공급 감소로 최근 미국 내 헤로인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불법 수익성이 높아 남미의 마약밀매조직이 헤로인을 주요 밀매품목으로 선정하는 추세에 있음

[표 2-1] 세계 아편 생산량(추정)

(단위: 톤)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가별	황금의								
	초승달지대								
	아프가니스탄	3,276	185	3,400	3,600	4,200	4,100	6,100	8,200
	파 키 스 탄	8	5	5	52	40	36	39	43
	황금의								
	삼각지대								
	미 안 마	1,087	1,097	828	810	370	312	315	460
	라 오 스	167	134	112	120	43	14	20	9
	멕시코	21	91	58	101	73	71	108	149
	콜 롬 비 아	88	80	52	50	49	24	13	14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9

4. 국내 헤로인 유통추세

(단위: 명)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검거인원	4	3	2	1	1	1	1	0	0	18
압수량(g)	380	567	1,078	7	12	9	18	0	0	1,914

- 1970년대 초에는 매년 적지 않은 양의 헤로인이 압수되고 상당한 국내 사용자가 있었으나, 최근 10여 년간은 내국인 사용사범이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음
- 1990년대 초반 까지는 태국 등 동남아에서 소비지인 북미 등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중간 경유지로 이용될 뿐이었음. 1997년 이후부터는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로부터 직접 국내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어 왔으나, 2007년도와 2008년도엔 적발 사례가 없다가 2009년도에 대량 적발되었음
- 헤로인은 1990년대 초반에는 나이지리아인이나 홍콩인 등 주로 외국인들에 의해서 운반되다가 1994~1997년에는 황금의 삼각지대의 마약밀매조직인 쿤사조직과 연결된 내·외국인들에 의해서 밀반입되었고, 1998년에는 태국 마약밀매조직이 주한 외교관사의 외국인 가정부와 공

모, 태국으로부터 대량의 헤로인을 우편물로 위장하여 한국으로 밀반입한 뒤 이를 다시 미국으로 밀반출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2002년에는 방글라데시인들이 본국으로부터 헤로인 1,077g을 밀반입하였음

- 특히 2001. 7. 3회에 걸쳐 헤로인 원료물질인 무수초산을 직물로 위장, 이란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2007. 9.경부터 2008. 3. 22.경까지 무수초산 약 15.48톤을 수출용 페 탱크로리 차량의 탱크 등에 은닉, 부산항을 통해 이란을 경유 아프가니스탄에 밀수출한 사건과 2008. 3. 24. 무수초산 약 2.8톤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을 시도한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2007. 4. 7.경부터 2008. 2. 27.경까지 무수초산 50톤을 5회에 걸쳐 과산화수소로 위장하여 파키스탄으로 밀수출한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2009. 2. 13.경 인천항에서 무수초산 5톤을 섬유로 위장하고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한 사건이 적발되었음
- 2008. 7. 2.경 무수초산 12톤을 엔진오일로 위장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이란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었으며, 2009. 8. 17.경 인천항에서 무수초산 10.64톤을 섬유로 위장하고 이란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음
- 2009년도엔 대만에 거점을 둔 국제범죄조직이 캄보디아 또는 태국에서 대만으로의 루트를 이용 헤로인을 운반하다가 대만 세관에게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캄보디아 또는 태국에서 한국을 경유 대만으로의 루트로 변경하여 한국인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하여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된 헤로인 4.94kg을 5회에 걸쳐 밀거래한 사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밀반입 루트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는 실례임
-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의 안전지대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을 범죄지로 이용, 헤로인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물질을 밀수출하였다는 점에서 국내기업들이 보유한 마약원료물질(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음
- 최근 주요 헤로인 밀반입사건
 - 2002년 방글라데시인이 신발 밑창 등에 헤로인을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사례 두 차례 적발
 - 2003년 이란인이 헤로인 약 7g을 밀반입

- 2004년 김○○, 남○○ 등이 2004. 10. 9. 캄보디아에서 구입한 헤로인 10.43g을 콘돔 속에 포장 후 생리대 안쪽에 착용한 상태에서 베트남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 2006년 홍콩인이 헤로인 약 18.2g을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바지 주머니에 은닉하고 홍콩 첵랍콕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 2009. 2.경 대만인이 헤로인 약 370.27g을 콘돔 6개에 나누어 담은 뒤 콘돔 4덩어리는 항문 안에, 콘돔 2덩어리는 바지 양쪽 주머니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으로 밀수출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 2009. 7.경 대만인 남성 3명이 헤로인 약 1.2kg을 콘돔 17개에 나누어 담고 각자의 항문 안에 5~6개 가량 은닉한 채 캄보디아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 2009. 10.경 나이지리아인 피의자는 인도 델리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헤로인 334g을 어학 학습용 교재 케이스 안에 은닉한 뒤 국제특급우편을 이용 발송하자 이를 수령하여 밀반입

제2절 코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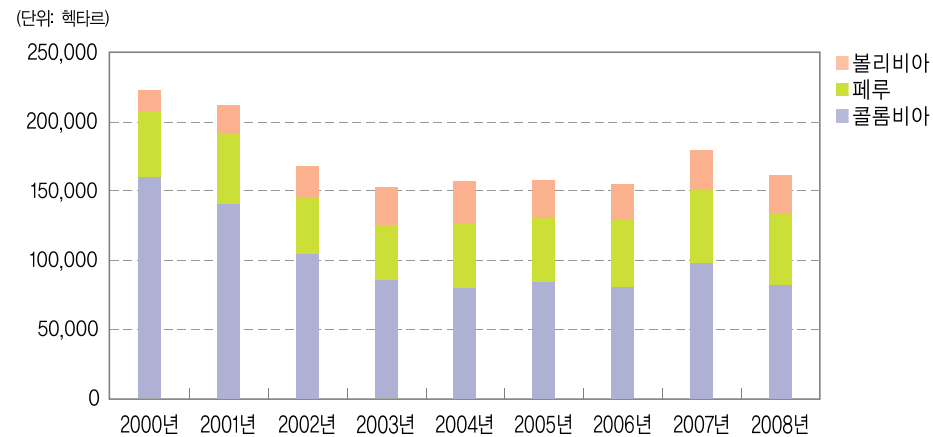
1. 세계적 현황

[표 2-2] 세계 주요 코카인 생산량(추정)

(단위: 톤)

연도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볼리비아	19,800	27,800	38,000	30,900	33,200	36,400	39,400
콜롬비아	222,100	193,340	170,730	170,730	154,130	154,000	116,900
페루	52,500	50,790	70,300	67,900	105,100	107,800	11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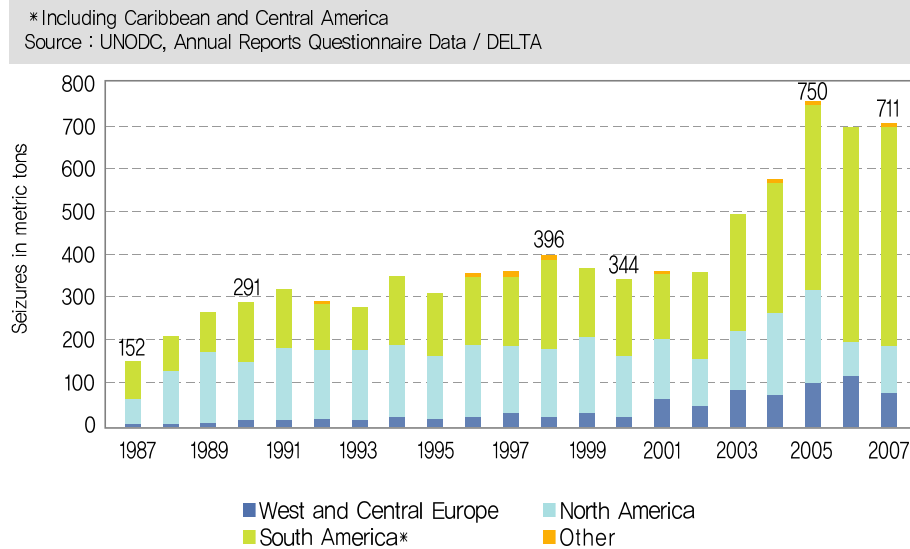
※ 출처: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9



[그림 2-5] 전 세계 코카 재배면적 추이

※ 출처: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9

- 코카인은 코카인의 주원료로써 주로 남아메리카 지역의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코카인의 연간 생산량은 약 800~1,000톤으로 추산되고 있음
- 코카인의 재배면적은 2000년(221,300헥타르)을 정점으로 2004년(158,000헥타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콜롬비아의 경작면적 증가로 인하여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전 세계 코카 재배면적의 경우 콜롬비아 48%, 페루 33%, 볼리비아가 18%를 각 차지하고 있음
- 코카인은 주로 중미지역을 거쳐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으로 밀수되어 소비되고 있으며 생산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되어 소비되기도 함
-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는 코카인이 가장 널리 남용되는 마약류 중 하나로 특히 크랙 형태의 코카인이 주로 남용되고 있음
- 유럽은 미주지역 다음으로 코카인 소비가 많은 곳으로,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코카인 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이후, 콜롬비아 마약조직이 유럽시장을 공략함에 따라 코카인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었음
- 전 세계 코카인 압수량은 2007년 현재 711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88%는 북미지역을 비롯한 미주지역, 11%는 유럽에서 압수되었음



[그림 2-6] 주요 대륙 코카인 압수량 추이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9

2. 유통경로

가. 반출경로



[그림 2-7] 코카인 유통 경로

- 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하나는 멕시코를 경유하여 북미지역으로 밀반입 되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서인도 제도 및 서아프리카 지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밀반입 되는 경로임
- 특히 멕시코는 북미로 유입되는 코카인의 주요한 경로로 이용되며, 미국에서 소비되는 코카인의 대부분이 멕시코를 경유하여 유입된 콜롬비아산 코카인으로 분석됨
-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및 에콰도르는 주요한 코카인 경유지로 세 국가에서 압수된 코카인의 양은 2007년 전 세계 압수량의 16%를 차지하여 여전히 요주의 지역으로 남아있으며 특히 에콰도르는 콜롬비아, 페루 등지의 불법 제조공장으로 유입되는 원료물질의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음
- 브라질로 유입된 코카인은 주로 아프리카 지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밀반입되고 있으며, 최근 자국 내 코카인 남용이 크게 증가하였음
- 남미 생산국들과 더불어 경유지역 국가들은 유엔,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음

며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지리적 한계 및 밀수조직과의 부정거래 등 뿌리 깊은 공무원 부패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스페인은 중남미에서 유입된 코카인이 유럽방면으로 유통되는 주요한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2007년 37톤의 코카인이 압수되어 콜롬비아, 미국,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압수량을 나타내었음
-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함께 코카인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유럽으로 유입되는 코카인 중 25%는 벨기에를 경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운송수법

- 콜롬비아의 마약 밀매 조직은 육로 또는 해로의 다양한 방법으로 코카인을 유통시키고 있고 때로는 소규모 잠수정이나 비행기를 이용하여 북미지역으로 밀반출하고 있음
- 코카인을 대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가구, 의류, 커피에 은닉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고, 심지어 코카인을 그림, 조각상, 도자기, 비누 등 물건형태로 만들어 위장하기도 함

[표 2-3] 경유지역의 코카인 압수현황

(단위: 톤)

연도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멕시코	2.6	20.0	25.0	30.0	21.3	48.2
코스타리카	2.9	4.3	4.6	7.0	22.9	32.4
베네수엘라	17.8	32.2	31.2	58.4	38.9	31.8
에콰도르	11.2	6.8	4.8	43.3	34.2	25.3
스페인	17.6	49.2	33.1	48.4	48.6	37.8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9

3 지역별현황

가. 남아메리카 지역

- 콜롬비아
 - 2008년 현재 코카인 최대 생산국으로 약 81,000헥타르에서 코카인이 밀경되고 있고 116,900톤의 코카인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됨
 - 콜롬비아는 자국 생산 코카인의 코카인 성분 함량이 낮아 페루 및 볼리비아 등 인접국으로부터 코카페이스트나 베이스 상태의 반제품을 수입, 완제품으로 정제하는데 주력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자국내에서 직접 코카인을 밀경하기 시작하였음
 -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코카인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유럽과 브라질 방면으로의 밀반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의 지원 하에 1989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메델린(Medellin)카르텔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으로 1993년 조직의 보스인 에스코바르를 사살하였으며, 1995년에는 칼리(Cali)카르텔의 보스인 로드리게스 형제를 체포하고 코카인 정제시설단지를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00년 수립된 마약퇴치전략(Plan Colombia)을 통해 현재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06년에는 Meta-Guaviare, Orinoco와 Putumayo-Caqueta 지방에서 단속을 하여 코카 경작지를 제거하였고, 2008년 FARC¹⁾ 간부 및 조직원을 대대적으로 체포 또는 사살하였음

1) 콜롬비아의 무장 혁명 단체로서 코카인 거래에 관여하고 있음

[표 2-4] 콜롬비아의 코카인 관련 압수량

구분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코카인 압수량(톤)	57.3	94	114	148.2	214.5	181.3	195.4
적발 공장수	1,555	1,376	1,471	1,865	1,953	2,272	2,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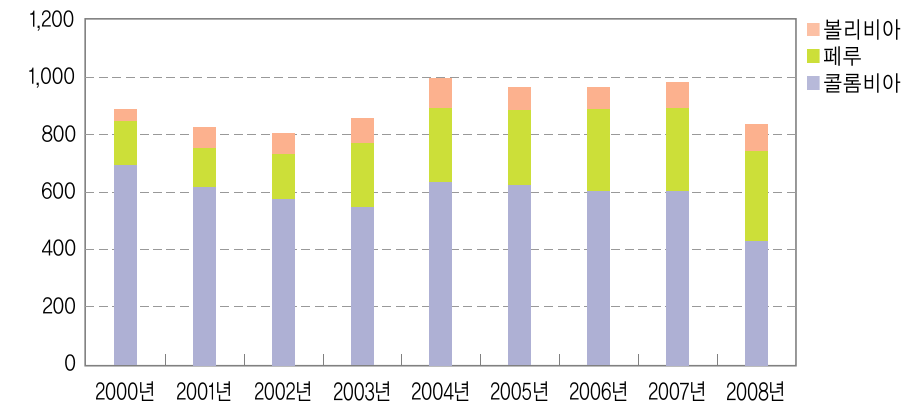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9

● 페루

- 페루는 콜롬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코카인 생산량이 많은 국가로 재배 면적이 2008년 현재 56,100헥타르에 이르며 약 302톤의 코카인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됨
- 1990년대 중반 이후 페루의 코카 재배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페루산 코카인에 대한 수요감소 및 코카인 가격하락에 의한 것으로 특히 1995년에는 지방의 코카인 시장거래가 중단되고, 코카인 가격이 급기야 생산비용보다 떨어져 농민들의 코카 경작 포기 1995년(115,300헥타르)부터 1999년(38,700헥타르)까지 코카 재배지가 약 66% 감소함
- 페루에서 생산된 코카인은 대부분 콜롬비아로 밀반입되어 그 곳에서 코카인으로 정제된 후 각국으로 밀수출되었으나,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마약퇴치정책으로 페루의 밀매조직이 직접 코카인을 정제하기 시작하였고,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및 볼리비아 등을 경유하여 세계 각국으로 밀반출하고 있음
- 1986년 대체작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생계수단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래 페루의 코카 재배지는 1992년(129,000헥타르) 최고조에 달한 후 2008년(41,000헥타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의 코카 재배지 제거작업과 코카페이스트의 콜롬비아 등지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항공 감시활동 및 대체작물 개발 관련 각종 프로그램 시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특히 2005년에 Monzon, Apurimac 및 Ene지역의 밀매조직과 불법제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Monzon에서 코카인 621톤 압수, 코카인 베이스 제조공장 522곳을 적발하였으며, Apurimac 및 Ene에서 코카인 베이스 제조공장 767곳 적발 및 코카인 1,200톤을 압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둠

● 볼리비아

- 2008년 현재 30,500헥타르에서 약 39,400톤의 코카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2000년부터 그 경작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음
- 볼리비아에서 생산된 코카인은 주로 유럽방면과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의 남미방면으로 밀반출되고 있음
- 자국 내에서 생산된 코카인, 코카베이스는 콜롬비아에서 정제과정을 거친 후 소비시장으로 밀반출되던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995년 이후 볼리비아에서도 불법 정제공장을 설립, 국내에서 정제된 코카인이 멕시코 등 경유국으로 반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국민들 사이에서 코카인을 주원료로 한 차, 비누, 치약에서 인스턴트 식품까지 개발되어 일상적으로 쓰이는 등 국민들은 코카를 안데스의 문화로 인식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코카인과는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음
- 2006년 볼리비아 대통령으로 취임한 모랄레스는 ‘코카인은 억제하되 코카는 인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코카 재배를 일정 면적의 제한을 두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퇴치정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그림 2-8] 주요 생산국별 코카인 생산 현황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9

나. 북아메리카 지역

- 북미지역의 2001년~2003년 간 평균 코카인 압수량은 약 130톤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 크게 늘어 2005년 207톤, 2006년 171톤, 2007년엔 198톤이 압수되었음
- 미국에서의 코카인 압수량은 2005년 175톤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07년 148톤을 압수하였고, 멕시코에서는 2000년대 초반 30톤 미만의 코카인을 압수하였으나 2007년 크게 증가하여 약 48톤을 압수하였음

다. 유럽 지역

- 서유럽지역의 코카인 압수량은 2002년 46톤에서 2006년 120톤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7년엔 79톤으로 감소하였음
- 2007년 국가별 코카인 압수량을 살펴보면 스페인 38톤, 네덜란드 10톤, 포르투갈 7톤, 프랑스 6톤으로 전체적으로 압수량이 감소하였음
- 남미의 마약조직들이 적발 가능성이 높고 공급 포화 상태인 북미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시장가격이 비싼 서유럽시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동 지역의 코카인 압수량은 언제라도 증가할 수 있음

라. 기타 지역

- 호주에서는 코카인의 소매가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를 구매하기는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며, 주로 대도시에서 남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호주에서는 2007년 약 626kg의 코카인이 압수되었으며, 대부분 우편 배달 또는 소규모 운반책으로부터 압수한 것임
- 아프리카 지역은 2006년에 비해 2007년 코카인의 압수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서아프리카지역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약 4.6톤의 코카인이 압수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음
- 아시아권에서의 코카인 남용은 미미한 실정으로 중국, 홍콩, 태국 등지에서 소량이 남용되는 것으로 분석됨

4. 국내 유통추세

[표 2-5] 국내 코카인 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검거인원	3	2	2	2	6	5	7	4	7	9
압수량(g)	1,800	111	1,170	905	8	0	4,772	79	8,869	298

- 코카인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피검거자의 불법사용 개시 시기로 보아 1986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음
- 1988년 10월초 소위 ‘얼굴 없는 코카인 사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서울시내 호텔에 투숙 중인 올림픽 관광객에게 발송된 코카인 10g을 처음으로 압수(서울중앙지검)하였으나 수령인이 소유관계 부인한 후 출국함
- 코카인 밀매사범을 최초로 적발한 사례는 1990. 2. 21.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박○○ 사건(150g 압수)이고, 1990. 9. 20.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제 코카인 및 에메랄드 밀수조직 사건에서 코카인 976g을 압수함
- 그동안 코카인은 주로 남미교포나 남미인들이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여 일본 등 제3국으로 밀수출하였으나, 2005년도에 한국 어학연수생들이 홍콩삼합회의 운반책으로 고용되어 코카인 20kg을 일본, 호주 등지로 수출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2006년도에는 인천공항을 출발 프랑스를 경유하여 룩셈부르크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코카인 약 4kg(시가 120억원 상당)을 밀수출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되었고, 2008년도에는 브라질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코카인 8.8kg(시가 258억원 상당)을 밀수하려 한 일본인 운반책 3명을 적발하는 등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2004년도 국내 코카인 밀수사건
 - 내국인 ‘오○○’ 사건 (2004. 6. 17. 인천지검)
2004. 6. 14.경 미국 뉴욕 거주 성불상 다○로부터 비타민제 용기 속에 코카인 4g을 은닉

후 페덱스 국제특송화물편으로 인천국제항공을 통해 밀반입

– 내국인 ‘음○○’ 사건 (2004. 11. 30. 서울중앙지검)

2004. 11. 8.경 미국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1g을 밀수입, 같은 달 29.경 코카인 2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사건특징 : 미국 유학중 코카인 중독, 압수된 코카인은 ‘크랙’이라 불리며, 보통의 코카인보다 약효가 몇 배 강하고, 중독성이 높은 마약임)

– 내국인 ‘전○○’ 사건 (2004. 12. 1. 인천지검)

2004. 12. 1.경 미국 거주 불상자로부터 국제소포를 통해 코카인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밀반입

● 2005년도 코카인 밀거래사건

– ‘한국인 어학연수생 개입 캐나다산 코카인 밀거래’ 사건 (2005. 5. 수원지검)

2004. 4~5.경 사이 한국계 캐나다 시민권자 김○○은 홍콩의 국제 폭력조직 삼합회 캐나다지부 하부 조직원(추정)으로 한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코카인 20kg을 호주, 일본 등지로 밀수출

● 2006년도 코카인 밀수출사건

– ‘코카인 4kg 밀수출 네덜란드인’ 사건 (2006. 3. 29. 인천지검)

2006. 3. 27.경 네덜란드 국적(원적: 가봉)의 흑인 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을 출발 프랑스를 경유하여 룩셈부르크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범 앤○○으로부터 코카인 약 4kg(시가 120억원 상당)을 은닉한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밀수출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

● 2007년도 코카인 밀수사건

– 김○○ 사건 (2007. 5. 인천지검)

2007. 4. 경 피의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리)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원두커피 봉지 속에 코카인 약 3.2g을 은닉하여 미국 LA발 인천행 화물항공기 특송화물로 발송하여 밀수입

● 2008년도 코카인 밀수사건

– ‘코카인 5.2kg 밀수출 일본인’ 사건 (2008. 9.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일명 ‘크○○○(나이지리아계 흑인으로 추정)’로부터 모든 여행 경비 및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피의자 사○○ ○○○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일명 ‘잭○’이 건네주는 마약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교부받아 대한항공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피의자 다○○○ ○○는 대한민국에서 사○○ ○○○를 만나서 위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 크○○○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08. 8. 13.경 사○○ ○○○는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잭○으로부터 교부받은 코카인 5.2kg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신고 2008. 8. 14.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여 밀수입

– ‘코카인 3.6kg 밀수출 일본인’ 사건 (2008. 9. 인천지검)

피의자는 나이지리아 국적 추○○ ○○○○ ○○○로부터 모든 여행 경비 및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이 건네주는 마약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일본 항공편으로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다른 일본 항공편으로 환승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위 추○○ ○○○○ ○○○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을 서울에서 만나 위 여행용 가방을 건네주고 동인이 이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 위 추○○ ○○○○ ○○○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여, 2008. 9. 12.경 피의자는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코카인 3.6kg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신고 2008. 9. 14.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여 밀수입

● 2009년도 코카인 밀수사건

– 외국인 영어강사 하○○ ○○○ ○○사건 (2009. 9. 인천지검)

2009. 9.경 피의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핏 ○○○○와 공모하여 위 핏 ○○○○가 미국 애리조나주 템파에서 플라스틱 지퍼백 안에 코카인 58.34g을 은닉하고 우편물로 포장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고, 피의자가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

1. 세계적 현황

- 2008년 유엔 발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아편과 코카인의 남용이 정체를 보인 반면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남용은 증가 추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암페타민류 각성제¹⁾ 남용자 수는 약 3,400 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연간 약 500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거 헤로인 또는 코카인의 남용 증가 속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남용은 특히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2008년 현재 전 세계의 약 1/3 국가에서 ATS류 밀조 사례가 보고 되고 있음
- 메스암페타민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북미지역에서 남용되고 있고, 엑스터시는 주로 북미와 서유럽지역에서 남용되고 있으며 그 외의 암페타민류는 서유럽지역에서 남용되고 있음
-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주로 정제형 메스암페타민이 남용되고 있고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크리스탈형 메스암페타민이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8년 현재 동 지역의 메스암페타민 남용은 증가하는 추이에 있음
- 북미지역에서는 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의 남용이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암페타민류 남용률은 2001년에서 2007년까지 미국 58%, 캐나다 64% 감소하였음
- 2008년 현재 유럽지역에서는 특히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에서 엑스터시 남용률이 높았으며 영국, 노르웨이, 스페인에서 그 외의 암페타민류의 남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UN은 1998년 특별회의(UNGASS)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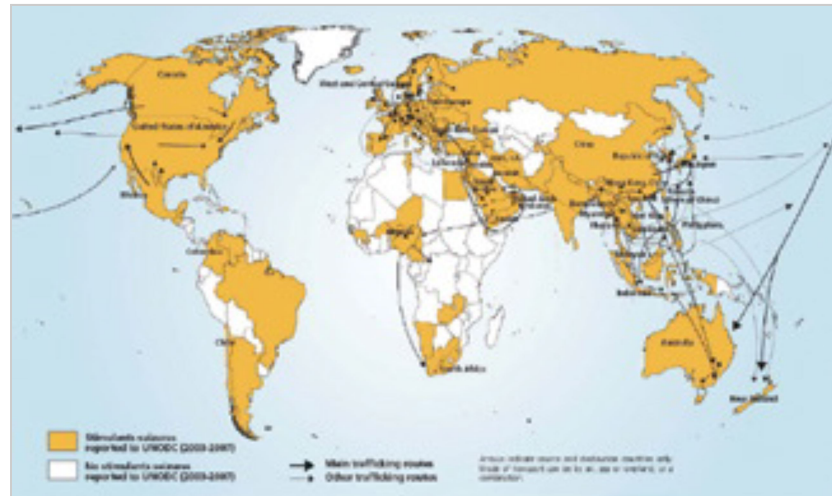
소집하였으며, 각국의 노력으로 최근 ATS류의 확산은 다소 둔화되었음

- 암페타민류 각성제는 비밀제조 공장에서 쉽게 제조가 가능하고, 유통과정이 비교적 단순하며 생산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점 등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2. 유통경로

- 암페타민류 각성제는 주로 유럽,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 밀조되고 있고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대부분이 소비지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국제적 밀매는 적은 편임
- 식물을 원료로 하는 마약류인 코카인, 헤로인 등은 위성이나 토지 조사를 통해 생산지를 파악하여 그 유통과정을 추적하는데 반해 암페타민류 각성제는 각국의 압수량을 통해 대략적으로 유통과정을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얻기 힘든 실정임
- 유엔 통계자료에 따르면 메스암페타민은 중국, 미얀마, 필리핀, 태국을 공급처로 하여 주변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권 국가로 밀매되고 있고, 엑스터시와 그 외 암페타민류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지에서 주변 국가로 유입되고 있음

1)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시 등을 일컫음



[그림 2-9] 2007년 암페타민류 유통경로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9



[그림 2-10] 2007년 엑스터시 유통경로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9

3. 지역별 현황

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 주로 크리스털형 메스암페타민과 정제형 메스암페타민이 제조, 남용되고 있으며, 엑스터시와 암페타민은 미미하게 유통되는 실정임
- 중국의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남용률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메스암페타민의 남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 미얀마에서는 헤로인과 아편 남용은 줄어드는 반면 메스암페타민의 남용은 증가하는 추세임. 마약밀매조직들은 중국, 태국, 라오스의 접경지역에서 밀조공장을 운영하여 암페타민계열 각성제를 대량으로 제조하여 태국, 중국, 인도 등지로 유통시키고 있음
- 필리핀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의 남용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 제조된 메스암페타민은 동아시아,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 태국은 2003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메스암페타민 남용 및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밀조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2009년 현재 미얀마산 메스암페타민의 밀반입 증가가 문제시 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중국에서 유입된 슈도에페드린을 이용하여 메스암페타민을 밀조하고 있으며 암페타민류 밀조공장은 과거에 비하여 점차 소형화하는 추세임
- 일본은 최근 메스암페타민의 남용이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으며 범죄조직이 메스암페타민 밀매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

나. 북미지역

- 주로 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가 남용되는 지역으로 미국에서는 멕시코 범죄조직에 의해서, 캐나다에서는 아시안계 범죄조직에 의해서 제조되는 실정임
- 미국에서는 2004년 약 18,000여 개소에 육박하는 ATS류 밀조공장이 적발되었으나 그 수는 점차 감소하여 2007년 약 5,700여 개소가 적발되었음

- 2007년 멕시코에서 마약퇴치작전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어 멕시코 마약조직들은 ATS류 밀조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미국, 남미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
- 캐나다에서는 마약류 원료물질을 전용하여 메스암페타민 및 엑스터시를 밀조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암페타민류 각성제는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으로 밀매되고 있는 상황임

다. 유럽지역

- 1990년대 이후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남용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 네덜란드는 지리적 특성과 방대한 교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유럽지역으로 유입되는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주요 거점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자국내에서도 대량의 엑스터시와 암페타민이 밀조되고 있음
- 벨기에는 대량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국가로 네덜란드와 함께 암페타민과 엑스터시의 주요 공급처로 지목되어 왔으나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정책으로 2009년 현재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밀조량은 크게 줄었음
- 독일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로부터 유입된 암페타민과 엑스터시가 동유럽으로 밀수되는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소비되기도 하고 있음
- 동유럽지역은 서유럽과는 달리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남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의 암페타민류 제조가 문제시 되고 있음

라. 기타지역

- 중동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압수량은 2003년 이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주로 불가리아에서 제조된 암페타민류 각성제가 터키, 시리아 등지를 거쳐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호주에서는 자국 내에서 밀조되거나 국외에서 밀수된 암페타민류가 남용되고 있으며 2008년

434개소의 밀조공장이 적발되었고 2009년에는 550개소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4. 국내 유통추세

가. 1989년부터 2009년까지 검찰에 검거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공급조직은 666개파 2,728 명임

- 범죄유형별

(기간: 1989~2009)

구분		조직수	검거인원
염산에페드린 (원료밀수입)		11	59
메스암페타민	제	31	185
	밀	257	649
	수	367	1,835
계		666	2,728

- 청별

(기간: 1989~2009)

청별	조직수	검거인원
서울중앙지검	236	999
부산지검	103	511
기타	327	1,218
계	666	2,728

나. 마약류 밀조 추이

- 1980년대까지 한국이 주요 메스암페타민 밀조 국가로서 전 세계 메스암페타민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바 있으나, 1990년대 들어 한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메스암페타민 밀조 조식이 거의 와해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산 메스암페타민이 밀반입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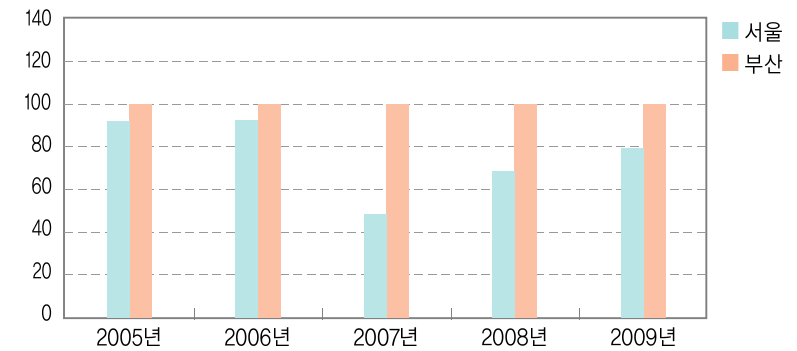
다. 메스암페타민 밀거래가격의 추세

- 검찰의 단속활동이 체계적으로 개시되기 전인 1988년경 5,000원 내지 10,000원에 거래되던 1회 사용분 메스암페타민의 가격은 검찰의 단속활동이 강화되자 1991년경부터 10배 이상 폭등하였으나, 2000년에는 유통물량의 급증과 공급사범들의 박리다매 전략으로 g당 소매가격이 대폭 하락하였다가 2004년부터 다시 상승하였고, 1회 사용분의 가격은 2001년부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표 2-6] 메스암페타민 연도별 밀거래가격

(단위: 만원)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구분	서울	30	34	40	30	130	90	90	50	70	80
	부산	30	27	16	46	46	100	100	100	100	100
1회 사용분	서울	9	9	10	10	9	9	9	10	10	10
	부산	9	9	10	6	10	10	10	10	10	10



[그림 2-11] 메스암페타민 g당 소매가격 추이

라. 향정사범²⁾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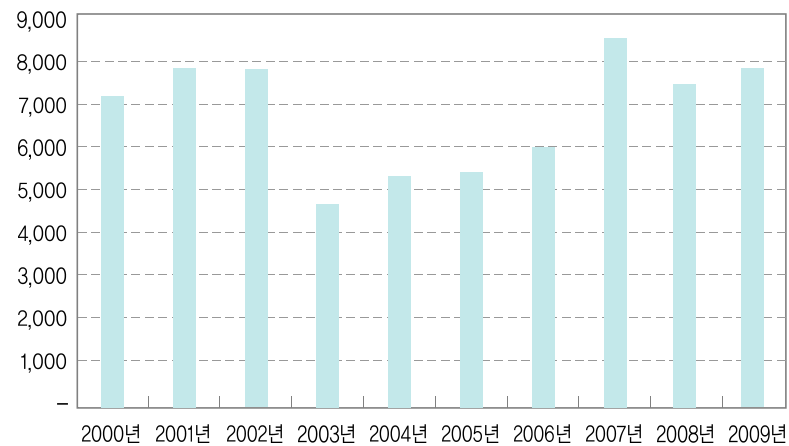
[표 2-7] 연도별 향정사범 단속추이

(단위: 명)

품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단속인원	7,066	7,959	7,918	4,727	5,313	5,354	6,006	8,521	7,457	7,965
증감률(%)	-5.5	12.6	-0.5	-40.3	12.4	0.8	12.2	41.9	-12.5	6.8

-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던 향정사범은 1999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03년에는 전년대비 40.3% 대폭 감소한 이래 2004년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8,000명선을 유지함
- 2009년도에도 향정사범이 전체 마약류사범의 67.1%를 점유하여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

2) 암페타민류 각성제(ATS)로서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등을 포함



[그림 2-12] 향정사범 추세

● 2005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이○○ 사건 (2005. 1. 서울중앙지검)

2005. 1. 23. 중국에서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대룡호편 보따리상의 수하물 속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밀반입

– 최○○ 사건 (2005. 1. 수원지검)

2005. 1.경 최○○등은 국제폭력조직인 삼합회 캐나다지부 소속 제이○(한국계)로부터 필로폰 2kg을 일본을 경유하여 국내에서 전달받고, 먼저 1kg을 7,500만원에 장○○에게 판매, 나머지 1kg을 7,000만원에 판매하려다 검거

– 김○ 사건 (2005. 4. 인천지검)

2005. 3. 중국 연길시에서 엑스티시 1회 투약 후, 2005. 4. 중국 연길발 인천행 차이나 항공편으로 입국하면서 엑스티시 666정, 필로폰 4.7g을 배낭 속 옷 주머니에 은닉하여 밀반입

– 이○○ 사건 (2005. 5. 서울중앙지검)

2005. 5. 30. 중국 대련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디메틸암페타민 약 32g을 담배갑 속에 숨겨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

– 김○○ 사건 (2005. 6. 춘천지검)

2005. 6. 27.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심양으로 건너가, 사건의 김○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2봉지를 받은 후 이를 미리 준비한 허리보호대에 은닉하고, 같은 달 3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 이○○ 사건 (2005. 6. 울산지검)

2005. 5. 중국 장춘시에서 필로폰 1,266.8g을 차통에 은닉한 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고, 같은 해 7.경 부산 수영구 소재 필로폰 전문 판매꾼 박○○의 집에서, 기 구속된 박○○의 선처를 위한 위장 거래 (일명, 던지기 작업) 목적으로 밀수한 필로폰을 교부

– 신○○ 사건 (2005. 7. 청주지검)

2005. 6. 중국에서 필로폰 230g을 구입 후 여행용 가방의 덮개 안쪽에 은닉한 뒤 국내로 밀반입

– 김○○ 사건 (2005. 7. 인천지검 부천지청)

2005. 7. 중국에서 필로폰 300g을, 같은 해 8.경 필로폰 1.01kg을 특급화물을 통해 각 국내로 밀반입

– 박○○ 사건 (2005. 9. 서울중앙지검)

2005. 9. 피의자는 사건외 중국인 곡○○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의뢰한 후 골프채 속에 필로폰 100g을 은닉한 채 북경발 국제항공 수화물편을 통해 밀반입

– 김○○ 사건 (2005. 9. 광주지검)

2004. 12.경 피의자는 공범 박○○ 등이 필리핀으로부터 밀수한 필로폰 3.4kg이 은닉된 화물을 수령

– 김○○ 사건 (2005. 10. 부산지검)

2005. 11.경 중국 연길시에서 통신기기 속에 필로폰 약 510g을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

– 최○○ 사건 (2005. 11. 울산지검)

2005. 11.경 중국 심양시에서 필로폰 2,030.2g을 3,200만원에 구입하여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후, 같은 달 22.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

- 장○○ 사건 (2005. 12. 수원지검 안산지청)
2005. 12. 중국에서 필로폰 120g을 4만5천 위안에 구입한 뒤, 이를 지갑 속에 은닉한 채 국내로 밀반입
- 최○○ 사건 (2005. 12. 부산지검 동부지청)
2005. 11.경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같은 달 26. 필리핀에서 구입한 필로폰 1.26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 2006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탈북자 관여 사건 (2006. 9. 서울중앙지검)
2006. 9. 중국 단둥에서 인천항으로 필로폰 약 1,800g을 보파리상을 통하여 밀반입
 - 조선족 필로폰 밀수 사건 (2006. 6. 서울동부지검)
2006. 1. 중국 산둥성 소재 위해공항에서 항공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약 80g을 피의자의 팬티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하고, 같은 해 2.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00g을 밀반입
 - 임○○ 사건 (2006. 7. 서울동부지검)
2006. 7. 5. 중국 심양성 소재 심양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한 수화물편으로 바지 4벌 속에 필로폰 약 9g을 은닉하여 밀수입하고, 같은 달 6. 같은 방법으로 바지 10벌 속에 필로폰 약 100g을 은닉하여 밀반입
 - 박○○ 사건 (2006. 10. 서울동부지검)
중국 거주 송○○와 공모하여, 2006. 10. 중국 심양성 소재 심양공항에서 항공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약 496g을 송○○가 소지한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반입
 - 장○○ 사건 (2006. 6. 대전지검)
피의자는 탈북자 출신으로 2005. 12.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연길국제공항에서 중국남방항공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약 220.19g을 서류가방에 은닉하여 밀반입
 - 박○○ 사건 (2006. 4. 부산지검)
2006. 4. 중국 요녕성 선양시 소재 선양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합계 1,198g중 약 626.6g은 피의자의 왼쪽 운동화 중창 속에, 약 560.7g은 오른쪽 운동화 중창 속에, 샘플용인 약 10.7g은 비닐봉지에 싼 채로 피의자의 하의 속에 은닉하여 밀반입
 - 김○○ 사건 (2006. 12. 부산지검)
2006. 12. 사건외 김○○이 가르쳐 준 계좌로 필로폰 100g에 대한 밀수대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캡슐 안에 필로폰을 소분한 후 약병에 담아 국제특급우편으로 수령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총 296g을 밀반입
- 2007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김○○ 사건 (2007. 2. 전주지검)
2007. 1. 중국 연길시에 거주하는 일명 박사장에게 환치기 계좌를 통해 탁송비용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110.2g을 감비차에 은닉하여 국제항공 화물편으로 밀반입
 - 윤○○ 등 밀수 사건 (2007. 3. 서울중앙지검)
2007. 2. 피의자들은 필로폰 약 340g을 연필꽂이와 알약 캡슐 305개에 0.4~0.5g씩 나누어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
 - 딸○○ 아○○ 밀수 사건 (2007. 3. 서울중앙지검)
2007. 3. 피의자들은 같은 필리핀 국적의 카○○○ ○○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산토스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종이박스 속에 필로폰 약 16.7g을 생선 등과 같이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
 - 린○ 사건 (2007. 4. 서울중앙지검)
2007. 4. 중국 거주 조선족인 아○이 필로폰 9.5g 등을 소포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수령하여 밀반입
 - 오○○ 사건 (2007. 4. 수원지검)
2007. 4. 9. 피의자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채○○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600g을 피의자들

- 의 중국산 등산화 3켤레의 밑창 속에 나누어 넣은 후 등산화를 신고 평택항으로 밀반입
- 방○○ 사건 (2007. 4. 서울북부지검)
2007. 4. 9. 탈북자인 피의자가 필로폰 123g을 인천항으로 밀반입하여 같은 피의자 김○○에게 교부
 - 송○○ 사건 (2007. 4. 서울중앙지검)
2007. 4. 10.경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필로폰 110g을 약 5~6g씩 나누어 검은 먹지로 감싼 후 비닐로 포장하여 우항청심환 환약용기 20개에 나누어 담아 발송하고, 피의자가 이를 수령하여 밀반입
 - 국제폭력조직 연계 사건 (2007. 4. 인천지검)
2006. 11. 피의자 윤○○은 일본 야쿠자(아마구치파)로부터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필로폰이 도착하면 일본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 대련에서 명불상 '최사장' 이 보파리상을 통하여 인천항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100g를 밀반입
 - 슈도에페드린 밀수 사건 (2007. 4. 서울중앙지검)
2007. 4. 중국인 왕○ 등은 필로폰 제조 물질인 슈도에페드린과 항히스타민제인 클로르페니라민염이 혼합된 물질 약 12kg을 국제우편으로 수취하여 밀반입
 - 김○○ 사건 (2007. 5. 서울중앙지검)
2007. 5. 18. 공모자인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약 962g을 비닐봉지 16개에 각각 넣어 이를 타이어 모양 벽걸이 시계 속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밀반입
 - 김○○ 사건 (2007. 5. 천안지청)
2007. 5. 피의자는 공범 이○○와 공모하여 중국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35g을 은닉한 운동화를 우편물 상자에 집어넣고 인천공항을 통하여 밀반입
 - 장○○ 사건 (2007. 6. 청주지검)
2007. 6. 8.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박사장' 으로부터 필로폰 201.6g을 교부받아 이를 100g씩 나누어 피의자 양쪽 다리에 찬 후 김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신○○ 사건 (2007. 6. 수원지검)
2007. 6. 중국에 거주하는 민○○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500g을 밀반입

- 강○○ 사건 (2007. 6. 안산지청)
2007. 6. 15.경 필로폰 1회 투약하고, 이○○와 공모하여 같은 달 18.경 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로폰 약 1kg을 밀반입
- 한·중·일 연계 필로폰 밀수 사건 (2007. 10. 서울중앙지검)
국내 최고의 필로폰 제조 기술자인 김○○와 판매사범인 윤○○ 등 13명이 공모하여 2007. 6. 18. 중국 대련항에서 필로폰 2,240.8g를 약 90g씩 소량 분산하여 비닐로 포장하고 '오투기 햇반' 45개 중 23개의 햇반의 밥 밑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하는 등 2007. 2. 2.~6. 19.경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약 10kg을 밀수입하여 이중 대부분을 일본 야쿠자에게 밀수출하고 일부를 국내에 밀매
- 정○○ 사건 (2007. 8. 서울중앙지검)
2007. 2. 1.경 윤○○ 등과 공모하여 중국 위해에서 필로폰 500g을 비디오카메라 가방에 은닉하여 위해항과 인천항을 운항하는 페리편으로 밀수입하고, 같은 달 16.경 중국 대련에서 필로폰 900g을 철제바이스에 분해하여 그 속에 은닉하여 대련항과 인천항을 운항하는 페리편으로 밀수입
- 윤○○ 사건 (2007. 7. 서울남부지검)
2007. 7. 6. 중국 북경에서 동방항공편으로 필로폰 약 38.1g을 비닐로 밀봉한 후 삼각 팬티 속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김○○ 사건 (2007. 7. 서울중앙지검)
2007. 7. 13. 중국 연길시에서 필로폰 약 100g을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 이○○ 사건 (2007. 7. 속초지청)
2007. 7. 18. 중국 훈춘시에서 필로폰 약 416.53g을 건축자재인 실리콘 통 속의 내용물을 비우고 그 안에 은닉하여 속초항으로 밀반입
- 버○○ 마○○○ 알○○○○○ 사건 (2007. 8. 서울중앙지검)
2007. 7.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각 50만 원씩을 건여 필리핀 공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같은 달 30. 필리핀 이사벨라시에서 봉지 커피 속에 필로폰 24.8g을 은닉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 최○○ 사건 (2007. 9. 대구지검)

2007. 8. 중순경 중국에 있는 성○○에게 금 1,0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0. 필로폰 약 103.85g을 여행객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안○○ 사건 (2007. 9. 서울중앙지검)

2007. 9. 1. 김○○ 등 조선족 및 중국인들과 공모하여 중국 북경에서 필로폰 182.4g을 알약 캡슐 526정 속에 넣고 비닐포장을 한 후 의약품으로 위장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

– 박○○ 사건 (2007. 3. 인천지검)

2007. 3. 12.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필로폰 185.8g을 전압측정기 4개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 황○○ 사건 (2007. 10. 인천지검)

2007. 3. 8.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한 수하물 속에 필로폰 340g을 도자기세트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 실○ 사건 (2007. 9. 인천지검)

2007. 9. 19. 브라질 국적인 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엑스터시 약 14,564정을 여행용 가방의 밑바닥을 개조하여 은닉한 후 국제여객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이○○ 사건 (2007. 10. 인천지검)

2007. 4. 17.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한 전기밥솥에 필로폰 1,238g을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 박○○ 사건 (2007. 10. 대구서부지청)

2007. 10. 24.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약 203g을 보이차 상자 바닥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

– 김○○ 사건 (2007. 11. 서울북부지검)

2007. 11. 2.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112g을 비닐에 넣은 후 팬티 속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홍콩·한국·일본 연계 필로폰 밀수조직 사건 (2007. 11. 부산지검)

일본 최대 폭력조직 ‘야마구치구미’의 중간 보스인 이○ 노○○○ 등 피의자들은 중국산

필로폰을 홍콩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후 가공 및 재포장 과정을 거쳐 이를 재차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여, 2007. 9. 28.경 홍콩발 김해공항행 항공기 편으로 필로폰 약 931g을 소지한 채 국내로 들어와 이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11. 10.경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침

– 김○○ 사건 (2007. 11. 부산지검)

2007. 11. 5.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약 200g을 DVD 플레이어 안에 은닉하여 복합운송업체 화물 편으로 밀반입

– 김○○ 사건 (2007. 12. 서울중앙지검)

2007. 11. 중순 중국 영구시에서 필로폰 188.8g을 400만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19. 필로폰을 허리춤에 테이프로 은닉하고 영구항에서 페리 편으로 인천항으로 밀반입

● 2008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밀수 사건 (2008. 1. 수원지검)

2008. 1. 중국 복건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이 혼합된 감기약 약 2.2kg을 차봉지에 넣어 밀폐하는 방법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 권○○ 사건 (2008. 1. 수원지검 성남지청)

2008. 1.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90g을 껏감 상자 안에 은닉하여 배편으로 인천항으로 밀반입

– 김○○ 밀수 사건 (2008. 1. 수원지검)

2007. 11.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엑스터시 약 8g을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은닉한 채 김포 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원○○ 등 밀수 사건 (2008. 2. 대전지검)

2008. 1.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0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

– 박○○ 밀수 사건 (2008. 4. 청주지검)

2008. 4. 중국 북경공항에서 필로폰 약 50g을 콘돔으로 포장한 후 향문 속에 감추어 김해 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남북정기운항선을 이용한 밀수 사건 (2008. 5. 수원지검)
피의자 임○○은 2008. 4. 중국에서 피의자 쯔○○(중국 국적의 조선족)의 알선으로 필로폰 약 200g을 매수하여 인천쑹 컨테이너에 은닉한 후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있는 세관을 통과하고, 북한 나진항에서 남북정기운항선인 추싱호에 선적하여 부산항으로 밀반입
- 권○○ 밀수 사건 (2008. 5. 부산지검)
2008. 5. 김○○(중국 거주, 미체포)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1,063g을 국제특송우편으로 수취하여 밀반입
- 엑스터시 밀수 사건 (2008. 5. 수원지검)
피의자 루○○○○은 2008. 4. 미국에 거주하는 애○○로 하여금 MDMA(일명 엑스터시) 10.1g을 지퍼형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페덱스 특송화물로 발송하게 하여 밀반입
- 염○○ 밀수 사건 (2008. 5. 인천지검)
2008. 4.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 김○○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360g을 보푸라기 제거용 롤러 등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송부하여 밀반입
- 박○○ 등 밀수 사건 (2008. 7. 대구지검 포항지청)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하는 일명 ‘보따리상’인 피의자가 2008. 7.경 중국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50g을 각 4개의 비닐 팩에 담아 생활용품인 먼지제거용 롤러 2개에 각 2개씩 넣고, 다른 생활용품들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강○○ 밀수 사건 (2008. 7. 수원지검 성남지청)
2008. 7. 14. 중국에서 소포의 밑바닥에 필로폰 약 98.5g을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
- 김○○ 등 밀수 사건 (2008. 8. 대구지검 포항지청)
2008. 8. 14. 피의자가 중국에서 필로폰 320g을 팬티 속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남○○ 밀수 사건 (2008. 9. 서울중앙지검)
2008. 8. 29.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304.45g을 팬티 아래 부분에 부착하여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마약류원료물질 슈도에페드린 밀수 사건 (2008. 9. 인천지검)
피의자 남○○은 조선족 중국인으로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중국인 피의자 왕○○로부터 중국 복건성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자가 슈도에페드린³⁾을 국내로 발송하면 이를 수령하여 뉴질랜드로 다시 발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슈도에페드린 합계 6,886g을 중국 복건성에서 국내로 밀수입
- 김○○ 밀수 사건 (2008. 9. 서울서부지검)
2008. 9. 8. 필로폰 약 220g을 비닐로 싼 다음 사타구니 속에 감춘 채 중국 심양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유○○ 밀수 사건 (2008. 9. 부산지검)
2008. 2. 16. 필로폰 약 216.97g을 반으로 나누어 비닐봉지에 담고 바지 호주머니에 은닉한 상태로 중국 대련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장○○ 등 밀수 사건 (2008. 10. 수원지검)
피의자들은 중국 심양에 거주하는 박○○에게 필로폰 약 1kg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박○○은 2008. 10. 13.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니○○ 히○○ 등 일본인 밀수 사건 (2008. 10. 인천지검)
일본 국적의 피의자들은 일본의 마약밀수조직으로부터 30만 엔씩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을 경유 다시 일본으로 밀수입 하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을 경유 말레이시아로 출발한 후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kg씩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필로폰 던지기⁴⁾사범 밀수 사건 (2008. 10. 수원지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 신○○, 박○○은 필로폰 매개로 재판중인 최○○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속칭 ‘던지기’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의자 민○○은 2008. 10. 13.경

3) 감기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약품

4) 마약류사범이 형사처벌상의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그 마약류사범의 동료나 조직원이 그 정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준비한 마약을 수수·매수하도록 유도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수수·매수한 것처럼 조작한 후,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하여 상대방이 검거되도록 하고 선처나 감형을 받게 하는 불법적인 수법

중국 연길시에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 약 1kg을 작업 대상자인 장○○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남아프리카인 밀수 사건 (2008. 12. 인천지검)
알○○ ○○○○ ○○는 2008. 12. 3. 여행용 가방 안 양쪽 측면에 필로폰 약 3kg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카타르 도하 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오사가 공항에서 환승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이○○○ 아○○○ 등 일본인 밀수 사건 (2008. 12. 인천지검)
일본 국적의 피의자들은 필로폰을 터키에서 한국을 경유 다시 일본으로 밀수입 할 목적으로, 피의자 이○○○는 2008. 12. 19.경 터키 이스탄불에서 필로폰 약 856g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1개를 소지하고 터키항공에 탑승, 2008. 12.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피의자 나○○○는 서울역에서 위 가방을 인수하여 밀반입
- 카○ 켄○○ 등 일본인 밀수 사건 (2008. 12. 인천지검)
일본 국적의 피의자들은 필로폰을 터키서 한국을 경유 다시 일본으로 밀수입 할 목적으로, 피의자들은 터키에서 여행용 가방 2개에 필로폰 1kg과 1.7kg을 각 나누어 은닉한 뒤 위 여행용 가방을 각자 소지하고 터키항공에 탑승, 2008. 12. 22.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2009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린○○ 등 대만인 밀수 사건 (2009. 1. 인천지검)
대만인 린○○은 중국인 일명 ‘안○’ 으로부터 여행경비 및 사례금 8천 인민폐(한화 160만 원 상당)를 받는 조건으로 필로폰 1,181g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중국 푸둥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하고, 피의자 채○○ 등은 중국내 국제밀수조직 총책인 사○○으로부터 여행경비 및 사례금으로 10만엔(한화 140만원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린○○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 김○○ 밀수 사건 (2009. 1. 창원지검 진주지청)
2009. 1. 13. 중국 연길시에 있는 동북아세아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71.15g을 매수하고, 2009. 1. 15. 중국 연길시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

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약 59.65g을 밀수입

- 이○○ 밀수 사건 (2009. 2. 서울북부지검)
중국 국적 조선족인 피의자는 2009. 2. 7. 필로폰 약 99.6g을 자신의 팬티 속에 소지한 채 중국 청도발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일본인 여성 밀수 사건 (2009. 2. 인천지검)
피의자 토○○ ○○○○는 2009. 2. 20.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1,031.3g을 액자 2개에 나누어 은닉하여 여행용 가방에 담아 카타르 항공편에 탑승한 후 카타르에서 환승하여 일본 오사카를 경유, 2009. 2. 21.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남아프리카인 밀수 사건 (2009. 3. 인천지검)
판○○○ ○○○○ ○○○○는 2009. 3. 12.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1,070g을 서류가방에 넣고, 이를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요하네스버그 공항을 출발,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김○○ 밀수 사건 (2009. 3. 서울중앙지검)
2009. 3. 18. 중국으로부터 녹차 상자에 은닉된 필로폰 235.5g을 인천항으로 밀수입
- 황○○ 밀수 사건 (2009. 3. 춘천지검 속초지청)
피의자는 2008. 여름경 김○○(제보자)에게 접근하여 필로폰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김○○이 이를 승낙한 후 2009. 3. 23. 중국에서 김○○이 피의자로부터 필로폰 327.92g을 건네받고, 2009. 3. 26. 속초국제여객터미널로 밀수입
- 일본 야쿠자와 연계된 필로폰 국제밀매조직 사건 (2009. 3. 부산지검)
일본 야쿠자 조직 ‘아마구치구미’ 출신인 이○○○ ○○○○ 등 피의자들은 일본에 있는 모○○○(일본인, 야쿠자 간부)의 지시를 받고 미리 밀반입하여 국내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09. 3. 20. 필로폰 약 1,021.33g을 와이셔츠 포장 박스 4개에 250g씩 분산하여 숨긴 채 판매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 엑스터시 등 밀수 사건 (2009. 4. 수원지검 안산지청)
피의자 박○○(조선족 여성)은 2009. 4. 9.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엑스터시 298정, 케타민 82g을 국제우편물로 발송한 것을 수령하여 밀수입

- 박○○ 밀수 사건 (2009. 4. 인천지검)
피의자 2009. 4. 23. 필로폰 195.24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상태로 중국 연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원 밀수 사건 (2009. 5. 인천지검)
피의자 조○○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백인)는 남아프리카에서 운동화 두 켤레 밑창에 필로폰 1,017g을 나누어 은닉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밀수하고, 서울 중구 소재 뉴서울호텔 1014호에서 피의자 코○○ ○○○(일본 국적 여성)와 타○○○○(일본 국적 여성)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고, 피의자 코○○ ○○○와 타○○○○는 위 호텔 1111호에서 피의자 아○○ ○○○○ ○(나이지리아 출신 일본 귀화 흑인)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
- 다국적 마약 밀수 사건 (2009. 6. 인천지검)
피의자 벤○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백인)는 필로폰 1,041g을 가방에 은닉한 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출발 싱가포르에서 환승하고 2009. 6. 2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밀수입(피의자 나이지리아 국적 흑인 우○ ○○○ ○○○과 일본 국적 여성인 코○○ ○○○는 국내에서 위 가방을 건네받아 일본으로 출국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
- 김○○ 밀수 사건 (2009. 7. 부산지검)
2009. 7. 26. 필로폰 95.62g을 화장품용기 2개 안에 은닉한 채 중국 상해 푸둥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이○○ 밀수 사건 (2009. 7. 인천지검)
2009. 6. 26. 필로폰 205g을 자전거 타이어 안에 은닉한 채 중국 단둥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 장○○ 밀수 사건 (2009. 8. 부산지검)
2009. 8. 20. 필로폰 40g을 콘돔에 넣어 자신의 질 속에 넣고, 필로폰 201g을 보이차 포장박스 2개에 은닉하여 중국 위해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이○○ 등 밀수 사건 (2009. 9. 인천지검)
피의자 이○○는 공범 윤○○의 부탁을 받고 2009. 9. 11. 필로폰 137.94g을 담뱃갑에 은

닉하여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부산 소재 피의자의 주거지로 송부하여 밀수입

- 장○ 등 밀수 사건 (2009. 10.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윤○○과 공모하여 필로폰 400g을 플라스틱 파이프 36개 속에 나눠 넣고 스티로폼 박스로 은닉한 뒤 2009. 9. 28.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밀수입
- 태국인 아바 밀수 사건 (2009. 10. 전주지검 군산지청)
피의자 프○○○ ○○는 태국에 거주하는 와○가 아바 160정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2009. 10. 17.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수령하여 밀수입
- 서○○ 밀수 사건 (2009. 12. 청주지검)
2009. 11. 28. 중국에서 필로폰 295.6g을 여성용 거들로 사타구니에 은닉한 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밀수입
- 장애인 이용 밀수 사건 (2009. 12. 대구지검)
피의자 정○○는 남편 김○○가 필로폰 수수 등으로 구속되자 김○○의 선처를 위하여 피의자 공○○ 등과 공작작업⁵⁾을 하기로 공모하고, 정신지체 1급 장애인 피의자 김○○을 포섭, 김○○이 태국으로 출국하여 공○○로부터 필로폰 41.05g을 건네받아 팬티에 은닉한 상태로 2009. 5. 11.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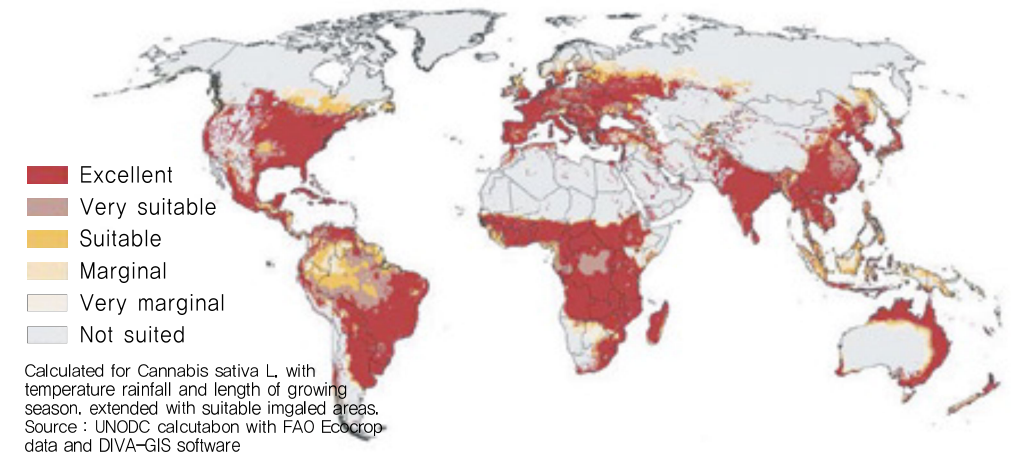
5) 다른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도운 공작사항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상대로 마약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여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제4절 대 마

1. 세계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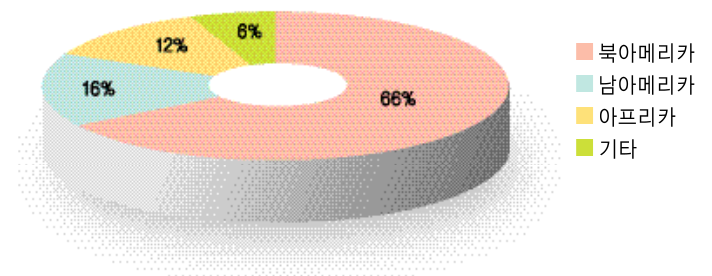
가. 개 요

- 2009년 UN 발간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1억 4천3백만 명에서 1억 9천만 명이 남용하여 마약류 중 가장 많은 남용자 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오세아니아, 북미, 중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남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대마는 172개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세계적으로 20~64만 헥타르에서 경작되어 양귀비 또는 코카의 경작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넓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최대 66,000톤의 대마초가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모로코, 멕시코, 파라과이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음
- 최근 유럽과 북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소규모 실내재배 및 수증재배가 유행하는 문제가 부각되어 새로운 단속 과제로 등장하였음
- 해쉬쉬는 그 압수량으로 추정해 볼때 약 7,600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산되고 지역별 해쉬쉬 압수 경향을 분석해보면 유럽지역에서는 스페인과 모로코에서 주로 압수되고 있고 서남아시아권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주로 압수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주지역에서는 주로 말린 대마초를 흡연하는 형태로, 유럽지역에서는 해쉬쉬를 투약하는 형태로 남용되는 사례가 주를 이룸



[그림 2-13] 전 세계 대마 생산 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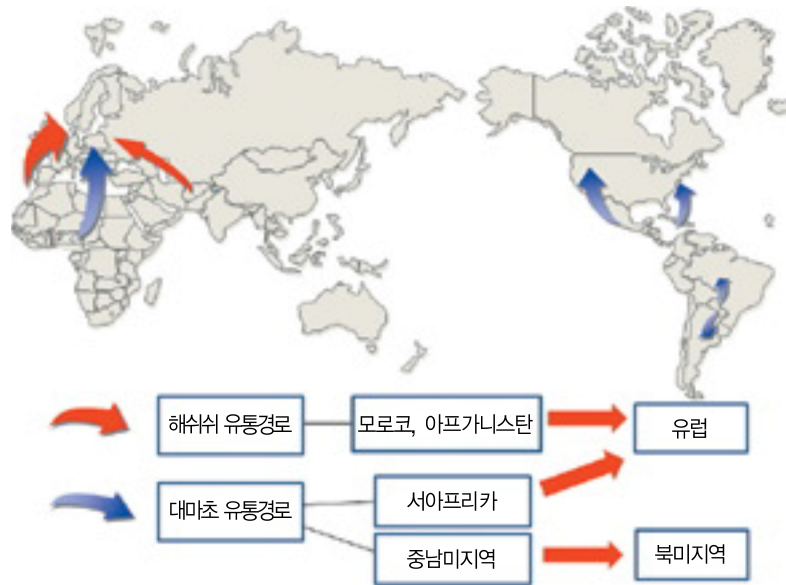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9



[그림 2-14] 2007년 지역별 대마초 압수비율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9

2. 유통경로



[그림 2-15] 대마초 및 해쉬유통경로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9

- 대마는 아편, 코카인과 같이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약류와는 달리 전 세계 곳곳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 중미지역에서 생산된 대마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 유입되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된 대마는 유럽방면으로 유입되고 있음
- 모로코에서 생산된 해쉬는 스페인을 통하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생산된 해쉬는 발칸지역을 통하여 유럽 각국으로 유입되고 있음

3. 지역별 현황

가. 미 주

- 북미 지역에서는 성인 인구의 10.5% 가량이 1년에 한 번 이상 대마를 남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08년 멕시코에서는 약 22,275톤을 생산하여 미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양의 대마를 생산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미국으로 밀수되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에서는 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밀수된 대마가 남용되었으나 점차 국내의 대마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대부분 서쪽지방과 애팔래치아¹⁾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집계됨
- 캐나다에서는 대량의 대마가 재배되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 THC 함량이 높은 대마가 생산되는 점과 실내 재배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남미국가들은 북미 대마초 시장의 주요 공급지로서 파라과이 및 콜롬비아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음
- 특히 파라과이에서는 전 지역에서 대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된 대마는 THC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대량의 대마가 주변국가로 밀매되고 있음.
- 2007년 남미 주요국 압수량을 살펴보면 볼리비아에서 423톤, 콜롬비아에서 183톤, 파라과이에서 172톤이 각 압수되었음

1) 북미 동부 지역의 애팔래치아 산맥 일원

[표 2-8] 미주 주요 국가 대마 흡수 현황(2003~2007)

(단위: 톤)

구분 \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멕시코	2,160	2,164	1,781	1,892	2,176
미국	1,224	1,118	1,112	1,138	1,446
브라질	166	155	151	166	n/a
콜롬비아	135	152	129	109	183
파라과이	77	25	67	58	172
베네수엘라	9	11	18	21	25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9

나. 서남 및 중앙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레바논에서 대마재배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된 해쉬쉬가 유럽으로 밀반입되는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아프가니스탄이 원산지 지목된 비율은 2001년에서 2004년까지 6%였으나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9%로 높아졌음
- 파키스탄에서는 2006년 이래 ‘마약류통제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의 공조관계를 토대로 마약류퇴치전략을 시행하고 있음
- 레바논에서는 정치적 불안상황이 지속되면서 2005년 이래 마약화나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유소년층에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구소련 붕괴 후 극심한 정치적, 경제적 혼란 및 국경치안 부재 등 단속능력 미비로 불법 생산한 대마, 해쉬쉬 등을 주변국가로 공급하는 마약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다. 유 럽

- 동 지역에서는 스페인, 네덜란드를 통해 많은 양의 해쉬쉬가 유입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대마

초보자는 해쉬쉬의 남용이 일반적임

- 중서유럽에서 전 세계 해쉬쉬 흡수량의 66%가 흡수된 반면 동유럽 지역은 그 흡수량이 극히 미미하였음
- 2007년 스페인에서는 전 세계 해쉬쉬 흡수량의 50%인 653톤이 흡수되었으며 벨기에,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대량의 흡수가 보고되었음

라. 아프리카

- 아프리카는 모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등의 국가에서 대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상당량이 유럽 등지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양의 대마와 해쉬쉬를 생산하는 국가로 이렇게 생산된 대마류는 서유럽과 북아프리카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음. 그러나 당국의 마약류퇴치전략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임으로써 타국가에서 적발된 대마가 모로코산으로 지목된 비율은 2003년 31%에서 2009년 21%로 크게 감소하였음
- 2007년 북아프리카지역에서 140톤의 해쉬쉬가 흡수되어 전세계 흡수량의 약 11%를 차지하였고, 이의 대부분이 모로코에서 흡수되었으며, 그 외의 아프리카지역은 해쉬쉬 흡수가 미미하였음

마. 오세아니아

- 오세아니아지역에서는 성인 인구 14.5%가 1년에 한 번 이상 대마를 남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남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호주에서는 전지역에 걸쳐 대마초가 밀경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자국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보임. 가격과 질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내의 수경 재배와 유통이 문제시 되고 있음
- 호주 당국은 대마초 단속과 함께 수요 감축정책을 주단위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대마초 흡수량은 약 2.4톤으로 집계되어 2003년 6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바. 동남아시아 및 극동아시아

-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대마가 생산되고 있으며, 성인 인구의 약 0.9%가 1년에 한 번 이상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적으로 가장 대마 남용률이 낮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기후적 조건으로 북부지역에서 주로 대마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헥타르 이상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음
- 태국은 지난 20년간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대규모 재배는 거의 사라졌으며, 국내소비 목적으로 일부 지방에서 재배하고 있으나, 주로 라오스 및 캄보디아에서 밀반입되거나 국제시장 반출을 위해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 필리핀산 대마초는 주로 산악지역에서 재배되고 있고, 거의 국내 소비용이며 소량의 대마가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등지로 유출되고 있음
- 일본에서는 대마 흡연이 널리 퍼져있어 마약류 중 두 번째로 빈번하게 남용되고 있으며 야쿠 자조직은 밀매를 통한 불법수익을 조직운영자금으로 이용하고 있음

4. 국내 대마사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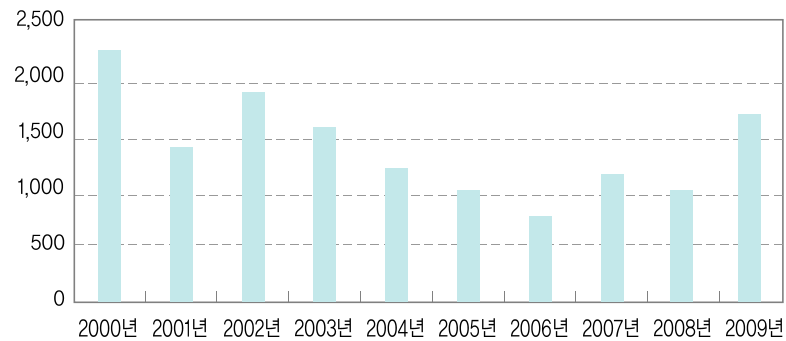
[표 2-9] 연도별 대마사범 및 대마초 압수량

(단위: 명)

연도 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단속인원	2,284	1,482	1,965	1,608	1,231	1,032	835	1,170	1,045	1,712
압수량(kg)	107	284	195	37	36	18	21	22	93	213

※ 압수량은 소수점 이하 자리를 반올림 처리

- 대마사범은 그 동안 증가와 감소세를 반복하다가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가 2007년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바, 이는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증가 및 외국 조기유학 내국인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대마초 밀반입 추이
 - 1995년도 이전의 대마초 밀반입은 대부분의 밀수입자 자신들이 흡연할 목적으로 10~20g 단위의 소량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주종을 이룸
 - 그러나 1996년도부터 밀반입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면서 영리목적 매매로 뚜렷한 전환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주요 사례로는 2003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의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대마초 7kg 밀반입, 역시 나이지리아인의 아이스박스를 이용한 대마 8kg 밀반입, 2004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의 대마 3.5kg 밀반입, 2006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의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대마 5kg 밀반입, 2009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의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백인 여성을 이용한 대마 4.3kg 밀수입,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여성의 대마 6kg 밀수입한 사례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2002년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 등이 6회에 걸쳐 아프리카산 대마초 137kg을 한 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다가 잇달아 적발됨
 - 2005년도 이후에는 위와 같은 대규모 밀거래 현상 보다는 대체로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소규모 소비목적의 대마 밀수사범이 적발되고 있었으나, 2009년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종전의 백인 남성이 아닌 백인 및 흑인 여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대규모 밀수사범이 적발 됨



[그림 2-16] 대마사범 추세

● 2005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미군 관련 대마초 대량 밀수입 사건 (2005. 3. 서울남부지검)
2005. 3.경 미국발 항공편으로 군사우편 속에 은닉되어 수신인이 미군 앞으로 되어 있는 대마초 약 200g 적발
- 저○○○○ 사건 (2005. 4. 인천지검)
2005. 4. 인도 고아 마푸사시에서 해쉬쉬 1,386g(5,500만원 상당)을 분산하여 베이비파우더 등 통속에 집어넣고 박스 포장 후 특송화물로 발송하여 국내로 밀반입
- 로○·제○○ 사건 (2005. 4. 창원지검)
2005. 4.경 피의자 로○은 미국서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약 6.5g을 수령하고, 같은 제○○은 해쉬쉬 약 9.1g을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
- 고○○ 사건 (2005. 6. 대구지검)
2005. 6.경 캐나다 내의 공범이 소포를 이용하여 캐나다에서 대구로 보낸 대마 약 14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밀수하고, 이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5회 흡입
- 맥○○○ 사건 (2005. 8. 서울북부지검)
2005. 8.경 캐나다 토론토발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대마 15.6g을 골프 가방 속에 은닉하여 밀반입
- 김○○사건 (2005. 8. 제주지검)

2005. 8.경 캐나다로부터 엑스터시 12정, 대마 약 4.4g을 국제소포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

- 마○○○ 사건 (2005. 9. 대구지검)
2005. 9.경 미국 내 공범이 소포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대구로 보낸 대마 약 5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
- 오○○사건 (2005. 12. 서울중앙지검)
2005. 11.경 공범 김○○으로 하여금 캐나다 벤쿠버에서 우편물로 대마 3.7g을 발송케 하여 국내로 밀반입
- 다○○ 사건 (2005. 12. 인천지검)
2005. 12.경 공범 엘○○○○에게 미국에서 대마초를 보내주면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 담배개비 속에 대마초 0.5g씩 총 80g을 은닉하고, 다른 대마초 약 80g을 12몽치로 나누어 각각 콘돔으로 싼 후 이를 삼푸통 3개 속에 나누어 헤어젤 등과 함께 포장하여 은닉 후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 2006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디○○○○ 사건(2006. 1. 인천지검)
2005. 12.경 미국내 친형으로부터 대마초 약 8.1g을 비닐로 포장한 후 이를 커피봉지에 넣은 다음 로션 등과 함께 페덱스 국제특송화물로 밀반입
- 코○○○○○○ 사건(2006. 7. 전주지검)
2006. 6. 미국내 애인인 케○○에게 대마(숙청 tea)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서 비닐 포장한 대마 약 5.05g을 은닉한 플라스틱 커피통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받는 방법으로 밀반입
- 이○○ 사건(2006. 9. 부산지검)
2006. 9. 미국 뉴욕에서 사건의 제○○가 대마 약 25g을 투명비닐 2개에 소분하여 커피봉지 2개 속에 은닉한 다음 정상적인 화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특송화물로 발송하여 국내로 밀반입

- 워○ 사건(2006. 10. 순천지청)
2006. 9.경 미국 거주 네○○로부터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마초 2.7g을 밀반입
- 리 ○○ 사건(2006. 10. 속초지청)
2006. 10. 러시아 자루비노항에서 대마수지(일명 해쉬쉬오일) 약 100g 상당을 땅콩버터가 든 플라스틱 통에 은닉, 소지하고 속초항으로 밀반입
- 우○○○○○ 사건(2006. 10. 인천지검)
2006. 10.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리타공항을 경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화물기편 특송화물(내용물을 ‘책’ 으로 기재)로 위장하여 대마 약 5kg을 밀반입
- 크○○○○○ 사건(2006. 12. 목포지청)
2006. 12.경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여 외국에 있는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3회에 걸쳐 10g 미만의 대마를 비닐에 싸 우편봉투에 넣은 채로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 2007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키○○○○○○○ 사건(2007. 4. 대전지검)
2007. 4. 16. 대마 2.9g을 호주발 국제우편물로 밀반입하고, 같은 날 피의자의 집에서 흡연기구인 속칭 ‘워터파이프’ 를 이용하여 위 대마 중 0.04g을 흡연
 - 우○○○ 사건(2007. 4. 의정부지검)
2007. 4.경 미국 시민권자인 친구 사건의 장○○가 대마 약 11.2g을 랩으로 포장한 후 청바지에 은닉한 채 국제우편물로 송부하여 밀반입하고 흡연
 - 설○○○ 사건(2007. 5. 포항지청)
2007. 2. 5.경 박○○ 등과 공모하여 태국 방콕에서 대마초 200g을 800달러에 구입한 후 비닐랩에 넣고 압축하여 각자 팬티 속에 은닉한 채 같은 달 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여 판매, 흡연
 - 알○○○○○ 사건(2007. 5. 대전지검)
2007. 5.경 캐나다에서 발송한 대마 약 1.65g(대마담배 5개비)을 은닉한 국제우편물로 전달받아 밀반입
 - 와○○○○○○○○○○○○○○○ 사건(2007. 6. 안산지청)
2007. 6.경 스리랑카에서 발송된 우편물 속에 대마수지 8.1g을 은닉하여 밀반입
 - 한국형 대마 강정 사건(2007. 7. 의정부지검)
2007. 6. 초순 피의자 딘○○ ○○○은 주거지에서 드래곤맘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대마광고를 보고, 그 무렵 대마자금 60만원을 위 드래곤맘 웹사이트 관리자가 지정하여 준 캐나다 밴쿠버시 이하 불상지로 송금하고, 위 드래곤맘 관리자는 대마강정 약 784g, 대마강정 892.4g 합계 1,676.4g 및 신종 대마 엑기스(일명 버더²⁾) 약 5g을 국제우편물로 송부하여 밀반입
 - 임○○○ 사건(2007. 7. 홍성지청)
2007. 6. 27. 이○○과 공모하여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는 랜○에게 부탁하여 사진액자 속에 대마 27g을 은닉한 후 항공우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콜○ ○○ ○○○○ 사건(2007. 7. 대전지검)
2007. 6.경 미국에서 발송한 대마 약 2.4g(대마담배 4개비)을 은닉한 우편물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밀반입
 - 니○○○ 사건(2007. 9. 청주지검)
2007. 9. 3. 스리랑카로부터 대마 약 6.9g을 국제소포로 밀반입
 - 니○ ○○ ○○ 사건(2007. 9. 광주지검)
2007. 8.경 미국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비닐에 싸여있는 해쉬쉬 20.65g을 땅콩버터가 든 유리병 속에 넣은 다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여 밀반입
 - 스○○ ○○ 사건(2007. 9. 울산지검)
2007. 8. 23.경 해쉬쉬 1.2g을 주머니에 은닉하여 프랑스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밀반입하고, 같은 해 9. 7.경 프랑스 친구에게 부탁하여 해쉬쉬 10.4g을 국제우편으로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밀반입
 - 전○○○ 사건(2007. 9. 서울중앙지검)

2) Budder는 해쉬쉬보다 수십 배 효력이 강력한 대마 엑기스 추출액

2007. 10. 경 공모자인 인도 마나리시의 성명불상자가 해쉬쉬 약 222g을 인도유물 사진첩의 겉표지 안쪽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밀반입

- 프○○○ ○○ 사건(2007. 10. 수원지검)

2007. 10. 1. 경 슬로베니아에서 대마 3.2g을 국제소포로 밀반입

● 2008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루○○○○ ○○ 사건(2008. 1. 수원지검 평택지청)

2007. 12. 29. 미국 조지아 주에서 프○○○ ○○이 마약류인 대마 약 4.6g을 헤어그리스 안에 숨긴 후, 머리빗, 의류와 함께 소포로 포장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수령하여 밀반입

- 시○○○ ○○○ 사건(2008. 1. 인천지검)

2008. 1. 17. 태국 방콕에서 대마 농축액인 해쉬쉬³⁾ 약 300g과 엑스터시 약 10g을 약 100개로 나누어 비닐랩으로 감아 물과 함께 마신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라○○ ○○○ ○○○ 사건(2008. 3. 부산지검)

2008. 3. 8. 중국 광주에서 해쉬쉬 약 18g을 사탕봉지 안에 은닉하여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로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레○ ○○ 사건(2008. 3. 춘천지검 속초지청)

2008. 3. 8. 러시아에 있는 자루비노항에서 대마수지(일명 해쉬쉬오일⁴⁾) 약 86.65g 상당이 비닐로 싸여 은닉되어 있던 질레트 면도 크림통 1개를 소지한 채 위 자루비노항과 속초항을 왕래하는 동춘호에 탑승하여 속초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입국하여 밀반입

- 예○○○ ○○○○ 사건(2008. 5. 춘천지검 속초지청)

2008. 4. 30. 캐나다 거주 형에게 대마를 한국으로 보내도록 부탁하여 동인이 팬케이크 상자 안에 대마 약 27g을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같은 해 5. 7. 수령하여 밀반입

- 드○○○ ○○○ ○○ 사건(2008. 5. 부산지검)

2008. 4. 24. 미국 거주 친구에게 대마를 한국으로 보내도록 부탁하여 동인이 땅콩 버터 병 속에 대마 약 24.5g,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4정을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같은 해 5. 21. 수령하여 밀반입

- 리○○ ○○ ○○○ 등 사건(2008. 5.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인 앤○와 공모, 리○○ ○○ ○○○가 대마 14kg을 가방에 넣은 채 2008. 5. 26.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게 하여 밀반입

- 제○○ ○○ ○○○ 사건(2008. 6. 의정부지검)

피의자는 주한미군 병사로 미국 거주 민간인 테○ ○○○로부터 2007. 12. 20. 크리스마스카드 속에 대마 4.6g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밀반입

- 테○○○ ○○○○ 사건(2008. 7. 의정부지검)

피의자는 주한미군 초청 계약근무자로 미국 거주 제○○으로부터 2008. 4. 28. 땅콩버터 병 속에 대마 19.8g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밀반입

- 보○○ ○○ ○○ 사건(2008. 7. 제주지검)

2008. 7. 3. 미국 거주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초를 한국으로 보내도록 부탁하여 동인이 약 3ℓ 가량의 카레분말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속에 비닐 팩으로 포장한 대마초 약 114.04g을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같은 해 7. 14. 수령하여 밀반입

- 리○○○ 사건(2008. 7. 수원지검)

피의자는 캐나다 거주 루○○ ○○로부터 2008. 7. 8. 대마 3.7g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밀반입

- 개○ ○○○ 사건(2008. 8. 제주지검)

피의자는 캐나다 거주 조○ ○○로부터 2008. 8. 5. 땅콩버터 통 속에 대마초 25.93g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밀반입

- 비○ ○○○○ ○○○ 사건(2008. 9. 부산지검)

피의자는 캐나다 거주 사○ ○○로부터 2008. 9. 2. 고체폴 빈통에 대마 2.23g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밀반입

3) Hashish는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시키고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마약류로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8~10배 강함

4) Hashish 이는 해쉬쉬를 반복 증류하여 추출되는 것으로 그 효능이 해쉬쉬 보다 2~3배 정도 강함

